

충남 미래의 길잡이 1

CNI 충남연구원
1995-2015

20년사

충남연구원
1995-2015



충남의

미래를 연다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Chung Nam Institute



충남 미래의 길잡이 1

목 차

발간사	12
기념사	14
격려사	16
축 사	18

제 1부 충남 선도정책 연구의 20년 21

민선시대를 견인하는 싱크탱크 출범	22
도전과 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30
개원 10년, 지방 선도정책의 연구와 성과 창출	36
충남도민과 함께한 정책소통의 창구	44
20살의 청춘, 충남의 행복한 미래 설계	52

제 2부 충남도민의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58

새롭게 태어나는 충남연구원	60
연구부서의 기능과 하는 일	62
어떠한 연구활동을 하는가?	66
연구원과 소통하면	67
충남 도민의 미래를 연다	68

1995 ~ 2015



1995.08

충남연구원 초기 연구원

2007.07 5대 원장 취임식



2010.05 춘계 체육행사

2012.01 전체 워크숍



2008.04 춘계 체육행사

2009. 12 사무처장 퇴임식



2014.05 춘계 농촌봉사활동

2015.01 전체 워크숍



발 간 사

충남연구원이 태어난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무 해를 기념하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미래의 길잡이”란 제목으로 제작된 충남연구원의 20년사는 바로 충청남도의 역사 속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한 보람도 느껴집니다.

20년사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충남 선도정책 연구와 미래 설계 20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고, 2권은 연구원의 성과와 추억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간 우리 연구원은 충남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지식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스무 살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즉, 지나온 날들을 거울삼아 더 나은 충남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을 위한 열정과 책임을 지닌 연구자 ·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 함께 지혜를 모으는 네트워크 조직 · 도민이 신뢰하는 최고 정책 연구기관을 목표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시군정책협력단이나 현장탐방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충남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충남 경제비전 2030’ 등 밑그림 그리기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우리의 최종 고객인 도민과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연구성과의 100% 공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등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충남연구원 모든 가족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연구원에 안계신 전 원장님들을 비롯한 연구원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20년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인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집필진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쪼록 연구원 20년사가 미래를 밝혀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 번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기 념 사

충남연구원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충남연구원이 있기까지 밤낮없이 연구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100명이 넘는 연구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연구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원장님들과 강현수 원장님께서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충남연구원 20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충청남도의 역사일 것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출발한 우리 연구원은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도정의 발전을 앞당길 주요정책을 구상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해 충남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굵직한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미래비전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우리 도가 이룬 값진 성과 어느 하나에도 충남연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경제, 문화, 산업, 환경, 복지, 자치 등 도의 모든 분야 중장기 계획과 연구에 충남연구원 여러분의 정성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마음으로 도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러한 연구원의 지식과 지혜가 받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정과 헌신으로 연구에 매진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열악한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년을 맞아 우리 연구원도 새로운 20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듯이, 도민의 행복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남연구원이 21세기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 20년사 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 연구원이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밝은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역사적인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이 책자가 우리 연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격려사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 충남연구원 『개원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약관의 세월 동안 열악한 여건 가운데 ‘행복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충남연구원은 道와 시·군이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만들어 공유하는 민생 정책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왔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충남발전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은 도민입니다. 그러므로 도민은 정책연구의 수혜자이자 수요자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기본 가치로,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정책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20년사에는 민·관·산·학·연의 전문지식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연구원의 활약상과 도민을 바라보는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구원 여러분,

정책 연구를 위해 흘린 땀방울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 구석 구석을 직접 들여다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과 연구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거머쥐었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창조할 연구 행정의 보다 넓은 역량 키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살을 맞은 충남연구원이 보다 강화되고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융복합 협력연구를 한껏 뽐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기 영



축 사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이자 도정발전을 위한 지식과 지혜의 플랫폼인 충남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먼저 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남도과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충남연구원이 문을 연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 그 해는 민선자치단체의 출범이 있었던 뜻 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충남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야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와는 달리 여건은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못했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은 산적했던 시기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출범이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와 여망을 충족 시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정책개발을 통해 막힌 물꼬를 터 주었으며, 도정 발전의 방향타가 되어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남의 위상을 세우는데 견인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가 하면 국가 간, 지역 간에는 무한 경쟁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마련에 매진해야 하며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충남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열어가는 내포시대의 개막이 그것입니다. 내포시대는 그동안 충청이 준비해온 서해안 경제시대가 마침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충남 도정은 21세기 지방정부의 대표적 모델을 이곳 내포에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환황해경제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축을 보강, 새로운 충남 100년을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 중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충남연구원이 개원 20년을 맞아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늠해보는 기념집을 발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간되는 20년사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에 대한 성원과 기대가 모아져 앞으로 더욱 활발한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충남발전을 선도해온 충남연구원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기념집이 발간되기까지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제 1부 _ 충남 선도정책 연구의 20년

- 민선시대를 견인하는 싱크탱크 출범
- 도전과 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개원 10년, 지방 선도정책의 연구와 성과 창출
- 충남도민과 함께 한 정책소통의 창구
- 20살의 청춘, 충남의 행복한 미래 설계

제 1부

민선시대를 견인하는 싱크탱크 출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의 역할 및 기대가 커짐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연구원의 설립이 요구되어, 1995년 6월 충남발전연구원이
민선 1기 충남의 정책 방향을 이끌기 위한 싱크탱크로 출범하였다.

ChungNam Institute
1995-2015

1. 5명의 研究員으로 시작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은 민선 시대 충청남도가 글로벌(世方化) 시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등 연구 활동을 하였다.

초대 안승주 원장이 취임했던 우리 연구원은 1995년 당시 도청이 소재했던 대전광역시 시의 충청은행 본점 사옥 일부를 임대하여 5명의 研究員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기획실,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3개 부서를 두었다. 연구 지원부서로는 행정실을 두어 인사와 총무, 회계 기능을 담당하였다. 초창기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지역 산업 및 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조사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발전에 관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분야별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충남의 세계화 및 지방화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을 발간



하였으며, 지방연구원 및 중앙단위 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매결연 등 연계체계를 통한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충청도와 16개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과 각 시·군, 타 기관·단체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역사문화와 산업디자인 연구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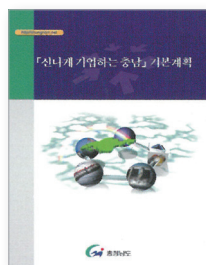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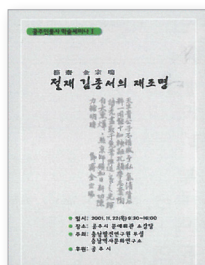
개원 이듬해인 1996년에는 제2대 이사장인 심대평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타 지역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역사문화와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부서의 신설이었다. 역사문화 부서는 충남이 백제의 전통을 계승하는 지역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품격과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산업디자인 분야의 중시는 미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작업을 연구원의 중요한 과제로 추가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보존 및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충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원의 조직도 기존의 3개 연구실에서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를 신설하여 5개 연구부로 조직이 확대되고 연구기획실도 통합적인 연구실로 변경하여 연구실장이 연구실을 총괄하였다.

개원 2년차에는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원 기금 확충에 주력하였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점증적인 확보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등의 연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조성사업의 활성화로 연구역량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수행되었던 연구들의 주요 키워드는 “충남정신발양”, ‘중소기업의

활성화’, ‘호남고속철도의 직선화의 논리와 당위성’, ‘백제연구’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연구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탁연구과제로는 충남 4대 권역별 개발경영 연구와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연구,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 등의 지역 종합발전과 도청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충남도민 현장 제정과 충남 농업종합센터 조성 연구, 재난 유형별 관리모형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사업성 연구 등도 이루어졌다. 역사문화분야로는 충남의 향교지, 서원·사우지 집필과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성흥산성 발굴 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본연구과제로서 충청남도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연구와 충남지역 산업연관분석 연구, 충남 사회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원은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뿐만아니라 새로운 연구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현안과제로서 충청남도의 인본경영행정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이념과 좌표를 제시하여 도정의 방향을 선도하였다. 나아가 충남 신용보증조합 설립방안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도유지 활용방안, 첨단산업(미디어밸리) 유치 영상보고서 제작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입지 규제 완화 시책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과 환황해권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방안, 여성대상 운용방안 등도 이루어졌다. 더불어 국제화, 여성 등의 문제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 연구성과물

3. 새로운 실용적 연구수행과 정보자료 인프라 구축

1998년은 새정부의 출범 및 제2기 민선 자치도정이 시작된 해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함께 도민의 욕구 증대, 지역간 경쟁 심화에 따른 충남의 비전 제시 등 도정의 새로운 정책변화와 관련한 연구수요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정책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자치도정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였다.

2대 황용주 원장이 취임했던 우리 연구원 운영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연구수요의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전공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관 컨소시엄의 활성화로 유기적인 연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최신 정보·자료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첨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정보종합센터로서의 역할에 집중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연구영역의 전문인력들이 기본연구과제를 1인 1과제로 수행하였다.



• '95년 충남 미래발전 워크숍

지방행정 분야는 충청남도 정책발전 체제 구축방안과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충남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으며, 지역도시분야는 충남 도시의 기능 및 변화요인 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별 육성방안, 충청남도 조건불리 지역 실태와 개발전략, 지수론적 접근법에 의한 충남 읍·면·동의 지역유형 구분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역사문화와 환경 분야에서는 충남의 충·효·열에 관한 기초문헌 조사와 충청남도 지역의 증가조사, 충남지역 백제유적 발굴·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와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연구 및 충청남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갈등 사례연구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여 세분화된 실용적 연구수행과 함께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수탁과제 연구로 수행한 강경도살리기 운동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중앙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정책의 모델 연구가 되어 국가시범 사업으로 채택된 우리 연구원의 최초 우수 연구과제로 기억되고 있다.



● 충남의 미래비전 제시

4. 충남 싱크탱크로서 정체성 확립과 지방화 시대 선도

충남발전연구원은 출범 4년 차를 맞이하여 충남 및 시·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역사와 전통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식경영 기반구축', '현장경험의 지식화', '연구분위기 조성' 등을 연구원의 중점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정에 기여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연구원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노력'을 전개하여 자치단체의 추가기금 확보와 철저한 예산 절감 및 수탁용역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적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는 研究員들의 연봉제가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충남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역량 강화가 요구되었기 때문

에 공학분야의 연구진을 강화하고, 도정에 관한 경험적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등 연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구인력의 풀(Pool) 관리와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생산성 및 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원내 토론회’ 운영과 연구책임제를 위한 ‘小院長制’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더불어 연구진의 자질향상과 학습강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대상 연구진을 육성하고,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증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발판을 마련하였다.

충남도정 및 시·군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행된 기본과제연구는 지역 특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거시적 사회 조류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연구과제보다 더 세분화된 주제를 연구하였는데 산출예산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충청남도 지역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 균형모델 개발, 충청남도 5일장의 활성화 방안 등의 지역경제 및 예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경관형성 수법 및 관리방안 연구와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전략 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의 활성화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충청남도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정비와 보존을 위한 방안, 충청남도 매립 및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지역개발, 역사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도정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충남 미래비전 연구회의

제 1부

도전과 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충남발전연구원은 초창기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2000년 10월 8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야흐로 '충남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이는 민선 2기 자치도정 구축과 함께 장차 도청소재지의 충남지역 이전 등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연구원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신호탄이었다.

ChungNam Institute
1995-2015

1. 충남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모색

3대 정종환 원장이 취임한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개발 일변도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면서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 기존의 역사문화부를 원장 직속의 역사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실수요자 중심의 연구원 목적사업에 원가계산 산정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전공별 집적화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연구수행체계 구축으로 기존 ‘주제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연구실을 연구본부로, 행정실을 사무처로 변경하였다. 연구영역은 자치행정, 지역개발, 산업경제, 건축도시, 환경공학, 역사문화, 산업디자인으로 각각 재편되었다.

이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개원 정신으로 최고 전문가의 사명과 명예에 부응하는 고품질 연구수행,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모형 개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완수를 기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유사전공분야의 팀제 운영을 통한 연구수행체계 고도화, 소규모 조직에 따른 팀워크 강화로 저비용-고품질 연구풍토 정착 등이 수반되었다.

특히, 충남 고도(古鄣) 옛모습 되살리기, 무공해식품 연구, 축산폐수 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연구, 중소기업 디자인 홀닥터제 등 정착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활동과 함께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한국과학재단 포함)와 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내 산·학·연 컨설팅 및 파트너십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계룡 출장소 내 청사

2.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에 매진

이른바 국가간, 중앙과 지방이 구별 없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 시·군정의 지식 및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에 매진해 오면서, 현장기반의 실수요 연구를 통해 충남도민의 복리증진 및 출연기관 요구에 신속한 대처로 연구원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정착에 주력하였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의 충실한 수행으로 공익연구기관의 위상 정립, 수요자 중심의 실수요 행정에 부응하는 문제해결형 연구수행, 지역 유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였으나, 당시 금리하락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식인프라 구축 미흡, 시·군과의 협력부족 등으로 실질적 효과 창출에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제2 개원정신'의 고품질 연구수행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기본·정책과제 중심의 연구수행으로 연구원 정체성 확립, 다양한 민의수렴을 통한 현실성 있는 연구수행체계 확립으로 일대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 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연구, 21세기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역사자원 되살리기 및 지역학 논의 활성화가 중점 추진되었다. 더불어 내부 혁신 강화를 비롯하여 연구역량 신장, 연구 생산성 및 관리체계 재구축, 디자인 및 발굴 조사사업 활성화,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 등도 주요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기본과제 연간 1인 1과제 수행원칙 및 심의·평가체계 강화, 정책마인드 제고로 도정 기여도 증진, 질 위주의 연구성과 거양, 도 및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종합 정책개발 수립에 주력, 대승적 차원의 협업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하였다.



● 충남도청 대전 구청사

이는 연구원 내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심층 분석으로 실질적 정책대안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별 기초정보 및 정책데이터를 토대로 장·단기 발전방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발 사업 등 독특한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의정활동지원 연구,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방안,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방안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정체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역할 정립에 최선

연구원 내부화합을 통한 전공별 역할분담으로 성숙한 연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충남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체성 있는 역사자원 발굴 연구에 주력해 오면서, 고객중심 연구와 지속적인 홍보 강화, 도, 시·군의 활용성 강화,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 지역 기업과 연구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디자인 지원서비스 활성화를 꾀하였다.

2001년말 기준으로, 기본과제 13건, 현안과제로는 일반정책분야 43건 및 디자인분야



● 충남도청 내포 신청사

95건, 수탁과제 55건, 연구조성사업 5건, 디자인 홀닥터 6건, 그리고 연구보고서 39건의 양적인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2년은 “제2의 도약기 새로운 출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능동적·적극적 연구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21세기 충남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직 5명을 보강하는 한편 지역개발·산업경제·환경연구부, 사무처, 충남역사문화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연구활동은 양적 연구 보다 질적 연구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였다.

더욱이 21세기 문화·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중점 연구방향을 도정 목표달성을 선도하는 연구, 글로벌 무한경쟁을 돌파하는 연구,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연구, 도민 본위의 실용성이 보장되는 연구로 설정하였다. 주요과제로서 충남 2010 전략기획,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3차 시·군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군단위 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민선 3기 주요핵심과제의 전략적 지원, 대선공약 관련 지역발전 대응전략, 지역 관광문화 진흥정책, 지역브랜드와 지역인재 육성사업 연구, 도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테마 소도시 육성전략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정체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위상·역할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원 위상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세미나 및 정기심포지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며, 홍보책자로 뉴스레터 연간 6회 발간 및 브로슈어를 연간 1회 발간하였다. 또한, 연구원의 복지를 위한 휴양시설의 회원 가입과 함께 연구원 단합·체력단련 행사를 연간 12회 개최하였고, 경력산정 관련 연봉 규정의 제정 및 자료수집용 업무 차량 구입도 이루어졌다.

4. 민선 자치도정의 원숙기에 부응하는 연구수행체계 구축

4대 오제직 원장이 취임한 2003년은 민선 자치 충남도정의 원숙기이자 새 정부 출범의 해로서, 도민의 욕구증대와 지역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연구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민선 3기 충남의 세계화 구현을 위한 구체적·장기적 비전이 필요했으며, 지식화·정보화에 바탕을 둔 열린 도정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긴요한 시기였다.

즉, 도정 및 시·군정을 선도하는 선진 연구기관의 위상정립에 걸맞은 중점 추진과제

를 도정 종합기획 조정기능 지원, 민선 3기 주요 핵심과제 중점 지원, 디지털 충남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 지원 확대, 열악한 연구재정의 자구책 강구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연구로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도청이전 연구, 계룡시 설치 관련 대응논리 개발, 호남고속철도 천안 분기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충남 지역 향토문화와 먹거리가 만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충남 관광자원 특화방안 연구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충남의 싱크탱크로서 실용화 정책연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인본·경영행정 도정철학 정립, 지역환경종합계획 수립, 충남 월드브랜드 개발, 백제문화 대규모 발굴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활동 전개,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역 정보센터 기능 강화, 도정자문기능 활성화를 위한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연구분위기 조성과 복지후생 확대 및 중앙정부·충청남도 운영 추이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역사문화연구소는 신설 (재)충남역사문화원으로 2004년 4월 1일자로 독립 이전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원 퇴직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수탁사업 잉여금 중 일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적 상여수당으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청사에서 일구어낸 연구원 본연의 사명과 책무의 완수를 위해 땀을 쏟았던 소중한 발자취는 길이 남을 것이다.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9월 19일 개청한 전국 최초 및 최소 규모의 국방모범도시 계룡시 승격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및 정책협력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후 연구원은 2003년 8월 4일 충청남도 구 농업기술원 청사로 이전하였다.



제 1부

개원 10년, 지방 선도정책의 연구와 성과창출

1995년 개원 이후 研究院은 대전시 은행동 충청은행과 둔산동의 사학연금회관, 계룡시의 계룡시청 내에서의 연구활동을 거쳐 유성의 구 농업기술원과 용두동의 동아일보사 건물 등으로 보금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동안 민선시대를 견인하는 싱크탱크로 출발하여 도전과 변화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역동의 시기를 거쳐 지방 정책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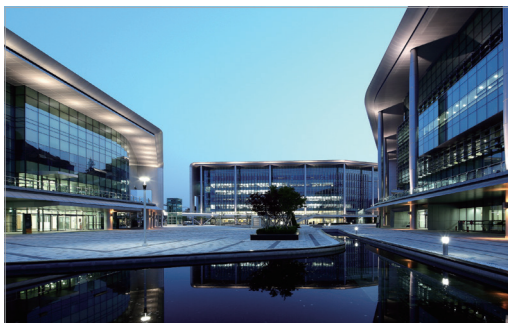
ChungNam Institute
1995-2015

1.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분야의 주도적 연구활동의 전개

5,6대 김용웅원장이 취임한 2004년,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3대 국정과제 즉,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수행체계를 보강하여 국책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정의 목표달성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아이디어, 학습하는 연구,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등을 기본 목표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구원(研究院)의 내실있는 연구로 성과의 질을 높이고 연구원의 자립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들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자료 수집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적극 홍보를 위해 발간사업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특히, 이때에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함께 운영되었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분리됨에 따라 연구원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건축 재정과 함께 연구역량의 멀티화를 통한 연구의 다각화와 용역수입의 확대 노력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주요 연구분야에서도 3대 국정과제 이외에도 충청남도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및 시·군 안전관리 기본계획,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지역별 특성화와 연계발전계획, 시·군지 편찬 및 발굴조사사업 등 환경보존과 도민안전, 물관리, 지역 문화와 관광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산업디자인부에서는 충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과 포장 디자인사업과 함께 충남 월드 브랜드(ChungNam, Heart of Korea)를 개발하였고, 역사문화 연구소에는 분리 이전에 공주 수촌리 백제유적과 서천 봉선리의 마한유적 발굴 등 백제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대규모 발굴사업을 전개하여 충남의 싱크탱크로서 실용화 정책연구의 보고(寶庫) 역할을 수행하였다.



● 충남도청 내포 신청사

2. 개원 10년, 도청이전과 지역균형발전 등 도정 현안연구 수행

충남발전연구원은 개원 10주년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선도적인 지역종합연구기관(Umbrella Organization)으로서 지역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도정 3대 역점시책인 지역경제력 제고와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연구 및 정보교류의 허브(HUB)연구기관으로서 지역 전문가 및 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연구기능의 연계·조정·통합을 주도하면서 우수사례 및 우수인재를 관리하였다.

지역종합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창의적 연구수행체제를 확립하였는데, 개방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수행방식과 겸임연구원제 인력 풀(Brain Pool)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 기본과제를 원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연심회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연구과제의 발굴도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3년간('05~'07)의 선도·중점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연구과제 공모제도 도입하였다.

● 충남발전연구원 10주년 기념식



더불어 지역발전 지식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포럼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도의회 및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과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와의 교류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동향 분석, 산업혁신지원 연구기능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 RHRD와 RIS사무국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도와 시·군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 및 선도과제 지원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신행정수도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자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책지원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청과 시·군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연구로는 충남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연구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홍성, 금산, 강경, 태안, 부여, 청양, 장항, 당진 등 선정), 충남·경기 상생발전방안연구,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기·홍성·청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천안·공주·논산·계룡·금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충남의 현안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흙닥터제 사업 시행으로 디자인 개발여건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였다.

3. 내실화 및 창의적 연구수행을 위한 ‘CDI형’ 연구모델 추진



研究院은 그 운영에 있어 연구성과와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혁신의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함에 통제와 계층적 연구체계에 서 자율과 성과, 고객지향형으로 전환하여 유연성과 연구 책임 실현을 위한 팀제의 도입과 부서장 순환제도를 적용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성과관리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연구사업 내실화와 창의적인 연구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살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CDI형’ 연구모형을 완성하여 수요자, 전문가,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실사구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지식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교류 기반의 강화로 지역

내외의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였고 네트워크 허브역할로 'CDI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원 관계자 초청강의와 지역 현안 관련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창의적 연구수행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모형을 정착시켰다. 또한, 협동적이고 상생적 조직문화 창달과 복리후생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직급이 참여 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자기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안식년제가 도입되었다. 나아가 2008년 3월에는 공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충남발전연구원 독립청사가 신축되어 최적의 연구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구원 공주시대의 개막과 함께 연구원의 신바람 경영으로 건전노사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사간 상호신뢰와 존중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장과 직원간에 각종 현안의견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활력있는 조직 문화를 위하여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하고, 직장분위기의 쇄신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연합체육대회의 추진과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 복지카드제를 도입하고 전직원 건강검진과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

내실화와 창의적 연구수행의 시기에는 고객의 가치창출과 연계하여 신활력 사업 및



• '08년 공주청사 이전 개청식

농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장항산단·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방대 논산유치, 서천 내포문화권 계획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있어 우리 연구원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국책 R&D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원내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여 전국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중소도시 및 쇠퇴지역의 재생기법개발 및 제도정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충남도민의 눈높이 연구수행과 도정지원 기능의 성공적 수행

2009년은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이 가속화되고 민선 4기 후반에 알찬 도정을 위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방 차원의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충청남도의 행정 눈높이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와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들의 고객만족도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중점과제로 대한민국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초광역 및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GT(그린 테크놀로지) 및 ET(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원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충남 디자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붐(Boom)을 조성하여 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다.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섭적 협업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시스템을 도입하여 융합 학문을 접목한 공동연구로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수요자 즉, 고객과 공동학습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제를 강화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즉, 공헌보상의 제공으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분위기를 일신하였다. 더불어 도정현안 기동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국책사업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대정부 대응팀, 동·서·남해안 특별법 대응팀, 허베이스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응팀 등을 운영하여 충남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수행과 성과 창출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 수행된 선도적 연구과제로는 국토해양부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新발전 지역 연구를 비롯하여 충남 유교문화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연구,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에 따른 기초생활권 연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농경지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연안담수호 여건변화에 따른 수질관리방안 연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경제비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등이 있다.

특히, 성장동력을 위한 지원연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금강살리기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금강살리기 연구, 충남의 국방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 그리고,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미래비전의 선도연구는 민선 5기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충남 2020비전 연구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수행되었고, 더불어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녹색성장 기반연구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기후변화 대응연구, 환경자원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개소식(좌)
- 공주 청사 이전 개청식(우)





제 1부

충남도민과 함께 한 정책 소통의 창구

민선 4기까지 충남도정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지향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은 연평균 8.8%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총량적 경제규모도 광역자치단체 전국 3위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이론적·실천적 뒷받침을
담당한 연구원의 위상도 인원, 조직, 예산 규모에서 큰 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명제에 걸맞게 정책 수요도 폭증하여
민선 5기에 들어 다양한 연구과제가 요구되었다.

1. 외생에서 지속 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연구로

민선 5기에 들어 선진형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미래비전과 시책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할 로드맵의 작성과 이행을 위한 구상이 추진되었다. 도와 시·군의 정책 추진 및 전략구상 시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우수한 정책이 국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정책 수행이 요구된 것이다. 이 시기는 세종시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지역 간 상호 연계 발전전략 추진,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업, 중소기업, 교육, 복지, 생활환경, 지역 문화 등의 분야로 연구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 기존의 외생적 발전에서 지속가능성과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지방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기초는 유지하되, 사회적 경제와 복지문화 부문에 대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수행과 지역밀착형 연구수행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력 배양에 중점을 둬으로써 적시성과 현장성 추구에 걸맞게 연구과제는 도 중심에서 시·군 정책개발 지원으로, 연구의 기능과 방향은 수익성이 전제된 수탁용역에서 정책개발 선도로, 고객 가치 차원에서는 중앙 분배의 하향식에서 지방 선도의 상향식으로 가치지향점이 진화되었다.

-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컨퍼런스



연구시스템은 성과지향형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연구수요의 사전발굴, 정책수립의 효과성 평가확인, 연구결과의 공유를 통한 지식사회기반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인 조직변화로는 정책개발추진단(policy development task force) 운영으로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과 우리 연구원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 이를 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협력시스템 구상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정책개발 시 동반자 정신을 살려 공동협력정책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주제별 정책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지식정보의 전파확산을 위해 연구성과물을 요약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충남리포트의 발간도 병행하였다.

이 시기 연구원 사업 중 특히 주목할만한 사업은 충청남도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21세기 문화비전과 독창적 지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메가이벤트 성격의 2010 세계 대백제전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회장(會場) 조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충남의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백제문화 콘텐츠 및 문화상품개발,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방향 정립 연구를 통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방향 설정,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비스 제공방안을 도출하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community business) 관련 심화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연구를 통해 국책사업의 구체적 실천방향 지침 설정 등의 연구도 추진하였다.

2. 농촌의 미래와 3농혁신을 위한 농촌농업연구부 신설

미래비전 선도연구로 “충남 2020 비전연구”를 통해 민선 5기 핵심과제의 추진전략과 실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 중장기 도정 발전비전 정립과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지표 선정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도민정상회의를 통해 직접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기본구상이 되는 전략계획으로서 초광역개발권 발전구상 정립을 통해 사업비 확보 이외에 차후 충남의 환황해권 해양건도(海洋建道) 발전전략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발전 지역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충남 도내 상대적으로 개발 불균형 정도가 높은 성장촉진지역(서천, 부여, 금산, 청양, 예산 등)을 대상으로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제시하여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개소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발전 지역 대상사업 우선순위 기준 마련과 평가수립을 제시함으로써 국토해양부 우수연구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녹색성장 기반연구로는 충남의 미래 새로운 산업이 될 만한 신성장동력으로서 2차 전기 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기후변화 적응방안 강구와 신재생에너지 적용 사례조사 등도 추진되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환경자원과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역 복원을 위한 광역생태축 구축연구는 이 시기에 추진된 시·군별 기초연구로서의 생태지도 구축 연구와 상승 작용을 함으로써 충남도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넘어 생태계 보전의 지를 드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산·들·강·바다를 하나의 통합된 축으로 연결하는 국토환경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인데,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한 과제를 지방이 선도한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한편 민선 5기의 중점 과제로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연구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직면한 현안으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학교급식, 농촌지도자 양성, 도농상생과 교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농업보조금 개혁, 향토산업 발전 방향 도출 등 3농혁신의 실천과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농촌농업연구부서가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이 시기에는 시·군 전담연구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전담 연구원이 각 시·군의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연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현장밀착형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세부 실행 내용으로 시·군과 공동 워크숍을 통해 전략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여 각 시·군에 적합한 발전사업을 발굴한 수요자 중심형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행상의 아쉬운 점으로는 각 시·군 당 2명의 전담연구원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법은 그 이후 시·군 정책협력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좀 더 수요자 및 현장밀착형 연구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 '14년 선순환 지역경제 한일심포지엄

3. 행복과 선순환, 분권혁신을 핵심 연구 의제로 선정

민선 5기 7대 박진도 원장 재임 시 연구원 운영철학은 연구원 내부 워크숍과 논의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 발표되었다. 연구원의 비전으로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여 자율·연대·열정으로 열린 연구원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의제1 : 충남 도민의 행복도 제고 방안
 -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 충남의 문화 여가 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
- 의제2 :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 지역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
 - 자본 및 임금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방안
- 의제3 : 3농혁신, 분권혁신, 행정혁신 실천전략 수립
 - 충남 3농혁신 중간점검 및 실효성 제고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 의제4 :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
 -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의제5 : 충남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
 - 지역 격차 실태 및 변화예측과 공동발전
 - FTA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방향
 - 저출산 고령화 대응 공동체 지향의 농촌사회건설
- 의제6 : 충남 현안문제의 정책적 대응
 - 충남의 물자치권 확립방안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형성 및 발전방안
 - 지역상권의 복합적 활성화 방안
 -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경제적 피해 실태와 대응

이를 뒷받침하는 목표로 첫째, 우리 연구원이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두뇌집단이 될 수 있도록 도정과 시·군정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정책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두고 있다. 둘째, 민·관·산·학·연의 지식네트워크 매니저, 지역 내외의 전문연구기관과 협력 시 관련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연구자 육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역량강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설정하였다. 넷째, 신바람 나는 연구원 조성을 위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에서 연구방향으로 내발적 지역발전 정책(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policy)으로는 지역순환형 식품산업체계 구축,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탄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효율적 연구 인프라 확충, 연구진 상호간의 장점을 살린 협력연구 활성화에 두었다. 한편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연구방법으로는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현장밀착형 연구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연구, 사람중심의 생활공간과 환경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내발적 발전정책이 단지 환경용량 내의 개발이라는 축소화 의미를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점과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도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이를 구체화된 지역계획에 적합하도록 자본이나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자치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앞당기는 성과가 기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제를 구체화한 주요 전략과제 추진은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연구 정착을 목표로 하여 6개 집중 분야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한 마당의 일환으로 전국 사회적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먹거리(local food) 활성화 국제 학술행사가 열렸고(2012. 9. 7, 아산), 지식네트워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강화한 사례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3. 7. 5),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란 주제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ISEC대표), 카르마 치팁(부탄 국민행복위원장), 나오토 야마우치(일본 오사카대학 교수) 등 국제적 유명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국제심포지엄(2012. 11. 30, 대전 유성)이 열렸다. 이러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 3대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우리 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주창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 원내 행복발전소 운영과 충남도민의 연구참여 제도화

대외적인 연구원 위상 강화와 함께 참여와 소통은 원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연구원 함께 만들기의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행복발전소의 운영은 연구원 자치를 위한 대의기구로서 연구원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 파악과 개선 사항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과 제안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구성을 보면 부서, 직급, 고용형태,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10명으로 하고, 운영 방법은 새로운 제도 발굴과 함께 현행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정착방안 강구, 직원의 자율적 운영 보장, 대표자의 간부회의 참석으로 대표성 확보와 실질적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평가시스템 개선, 북카페 운영, 탄력근무제와 육아 휴직제, 에너지절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여 실천하는 틀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직원 참여예산제 운영(2012. 10) 제도화를 통해 구성원에게 예산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전국 시도연구원 중 최초로 운영한 것으로,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행복충남 정책포럼 운영, 어학교육 우수자 연수, 도청이전 개청 기념심포지엄, 북카페 조성 등 다양한 실질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정책 생산, 유통, 정보전파 등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하고 창의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선행하여, 도민 친화적인 연구 수요조사와 아이디어 공모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단체, 전문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학습과 공동연구, 지역 단위 연구모임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연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현장밀착형 연구수행의 모범으로서 우리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지식정보의 생산, 확산, 전파,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 '13년 연구원 북카페



● '14년 도민참여 예산교육_여성리더부문

제 1부

20살의 청춘, 충남의 행복한 미래 설계

충남발전연구원, 아니 이젠 충남연구원이 2015년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비상을 하려고 한다.
토목이나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발전보다는 도민의 행복과 높은 삶의 질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연구에 더욱 힘을 쏟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도에 대전 시대를 접고 충남 시대를 본격 시작한 것이
이 새로운 변화의 날개 짓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 20살의 성인식을 치룬 충남연구원의 역량을 넘어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욱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는다.

ChungNam Institute
1995-2015

1. 20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연구 강화

“충남연구원의 최고의 강점이자 경쟁력은, 국내·외의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보다 충남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소통한다는 데 있다. (중략...) 로컬(local)이 곧 글로벌(global)이다.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곧 세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8월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강현수 원장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다. 강원장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연구를 비롯한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시 말해 가장 지역적인 연구성과가 최고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직을 개편해 내실을 다졌다. 행정복지연구부와 미래전략연구단을 신설해 충남 도정의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부설 센터조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으로 민선 6기 충남도정의 역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충남도의 「3대 혁신과제」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혁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혁신」, 농어촌에 희망 주는 「3농혁신」, 그리고 「3대 행복과제」인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다. 특히,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연구하기 위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개설(2015.3)하고, 기후변화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통합 운영하기에 이른다.

또 하나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방과 공유”이다. 즉 연구성과나 생산된 자료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그간 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대외적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모든 연구원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원 운영과 성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시스템화,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현장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된 취임사와도 같은 맥락이지만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출판된 '홍동마을 이야기' 및 '현장 총서 시리즈' 발간과 각 시·군과 연구원들을 매칭하는 '시·군정책협력단' 활동, 그리고 도시재생 및 골목 만들기 현장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지역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대표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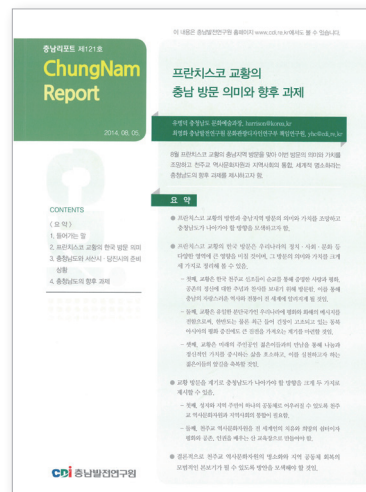
• 좌_홍동마을 밝맑도서관 방문 / 우_도시재생 활성화 세미나

2.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연구원이 만든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성과들은 더 이상 연구원에만 고이 간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최종 고객인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에 잘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캐비닛 속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 등 정책 활용의 부족함을 꼬집는 말들이 있다. 100% 정책연구만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우리 연구원이라고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책 활용이라 하면 주요 고객인 관계 공무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논거 제시, 정보 제공, 정책 역량 강화 등은 물론, 대외 홍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홍보매체의 다변화에 부응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장하기 위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웹진은 물론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해 연구성과의 실시간 전달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보고서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는데, ‘충남리포트’라는 이슈페이퍼로 알기쉽고 간략하게 풀어 발간함으로써 고객의 이해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보도 횟수와 기획보도가 늘어나게 되었고 연구성과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충남리포트

3. 환황해권 시대를 비롯한 충남 도정 선도

민선 6기 들어 충남도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서해안비전을 선포하고 중국을 위시한 대외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도 국제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여러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산둥성 엔타이대학이나 웨이하이시 등은 충남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와 같은 상호 협약을 계기로 중국의 남·중부 핵심도시에 위치한 대학과 연구기관 간 학술 및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다.



● '14년 산둥성 엔타이대학 협정식

또한 연구원 내 ‘중국연구팀’을 꾸려 도 및 시·군의 대중국 교류와 정책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연구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충청중국포럼’ 창립은 중요한 국제교류관계 활성화에 한 몫 할 것이다. 이렇듯 연구원은 도정을 앞에서 이끌어가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 농촌 마을단위의 정책개발, 농어업유산 발굴과 인식 확산,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을 위한 역간척, 로컬푸드 인증식당 ‘미더유’ 사업, 광역도 최초의 인권연구, 전력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들이 국가정책으로 제안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개소식



4. 20살... 또 다른 도민 행복 설계의 시작

2015년은 충남연구원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어른이 되는 20살의 시작이다. 이제 연구분야에서도 어린 티를 벗고 보다 성숙한 연구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그간 쓰여 왔던 ‘발전’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명칭으로 연구원 이름도 바꿨다.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경쟁력을 키워왔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민의 행복,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핵심키워드로 삼고,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연구원 생활이 불행하다면 어떻게 행복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연구자 스스로가 행복하도록 노력하

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직장, 충남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실질적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반대로 보면 연구원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외부 출장이 많다. 다양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이 조금은 더 기쁠 수 있도록 반갑게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충남연구원은 충남과 15개 시·군, 그리고 그 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도민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이유다. 또 다른 20년 후를 기대해보며...



제 2부 _ 충남도민의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 새롭게 태어나는 충남연구원
- 연구부서의 기능과 하는 일
- 어떠한 연구활동을 하는가
- 研究院과 소통하면
- 충남 도민의 미래를 연다



청양읍민회



새롭게 태어나는 충남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 국가주도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장기의 산업경제 중심에 국한된 연구기관으로서 '충남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농업, 문화, 자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충남지역의 종합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대적 소명에 충실 하기 위하여 '충남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연구부서의 기능과 하는 일

충남연구원 조직은 크게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가 있다, 상설기구로는 연구실과 행정실을 두고 비상설기구로는 고문과 감사,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 및 비상임연구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개원 이후 연구원 사정과 충청남도의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다. 현재는 상설기구로서 연구실과 행정실이 있고, 비상설기구로서 연구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실로는 미래전략연구단, 기획조정연구부, 지역도시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농촌농업연구부, 환경생태연구부,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행정복지연구부가 있다.

부설조직으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경제교육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업 6차산업화센터, 공공디자인센터, 갈등관리포럼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연구부서

기획조정연구실

- | 연구실 총괄
- | 연구기획, 연구조정, 연구결과 평가의 총괄
- | 연구사업관련 예산편성, 심사, 집행 품의 총괄
- | 연구실적 홍보·출판 및 연구구성사업의 총괄
- | 연구정보·자료수집·관리의 총괄

미래전략연구단

- | 충남도의 대외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
- | 충남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 | 충남도 내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관해 적시성 있는 대응 과제 수행

지역도시연구부

- | 충남도, 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 및 도시계획 기법 연구
- |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개발·정비 등 지역 도시재생 연구
- | 지역 및 도시 관련자료 조사·분석
- | 도민의 생활정주환경, 인프라 및 교통·물류 계획 수립

산업경제연구부

- |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 |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 연구
- | 지역 노동시장 분석
- | 국제통상 및 지역 간 물적 인적 교류 연구
- | 외국인 직접투자 및 내국인 투자 유치 연구
- | 사회적 경제 연구

농촌농업연구부

- | 농어촌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 도 및 시군 농정발전과제 연구
- | 농림수산식품 및 농산어촌 관련 정책연구
- | 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 연구
- | 농산어촌 지역산업 활성화 연구

환경생태연구부

- | 지역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
- | 내발적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의 통합 연구
- | 에너지 자원순환형 지역모델 구축
- |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 생태네트워크 구축 연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 | 지역 문화예술중장기·관광개발계획 수립
- | 지역 문화행사·이벤트축제 계획 수립
- | 지역 문화정책연구 및 계획 수립
- | 도시 및 경관디자인 계획
-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 | 디자인 상품개발

행정복지연구부

- | 조직·인사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기법 연구
-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구상 및 현안대응 연구
-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 | 지방의회의 기능 및 의정활동 지원
- | 지역사회복지 및 전달체계 연구
- |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총무과

- | 원내 행정 및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 | 서무, 인사, 기밀, 복무, 상벌, 연봉에 관한 사항
- | 이사회 운영
- | 예산편성 및 조정, 심사분석
- |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경리과

- | 결산에 관한 사항
- | 출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행정지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

- | 온실가스 감축지원
- | 배출권 거래제 대응
- | 충남지역 기후변화 적응지원
- | 충남지역 기후변화 생태 모니터링
- | 연안, 해안지역 모니터링
- | 산업시설 주변 대기환경 모니터링

서해안 기후환경 연구소

- |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 | 연안 기후변화 영향연구
- | 기후변화 · 충남지역 수계 모니터링
- | 물관리정책 지원
- | 수환경 개선 홍보
- | 기후변화 인식제고 · 교육허브 구축

부설센터

물환경연구센터

- | 수계별 수질환경 용량 및 오염실태 등 기초 조사 및 연구, 하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 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실시, 총량관리제 기술지원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조정

교육운영팀

- | 기후변화 인식제고 사업
- | 충남 기후변화 홍보포털 구축 및 운영
- | 충남 기후변화 교육허브 구축
- | 중부권 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축

공공디자인센터

- | 민 · 관 · 학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시군 공공디자인 진단, 컨설팅지원
- | 지역고유 콘텐츠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공공 디자인사업 유도
- | 6개 권역별 능동적 역할 수행 및 유기적 통합체제 구축

경제교육센터

- | 충남지역 경제동향 전문지 월간 「충남경제」 발행 : 경제 부문별 동향 분석, 충청남도 경제일지 등
- | 충남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작성(통계청 승인 제21308호)
- | 경제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조사·평가 및 연구
- |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활동 선도·지원
- |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및 DB구축
- | 교육·상담·인증지원 및 컨설팅
- |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의 통합 및 연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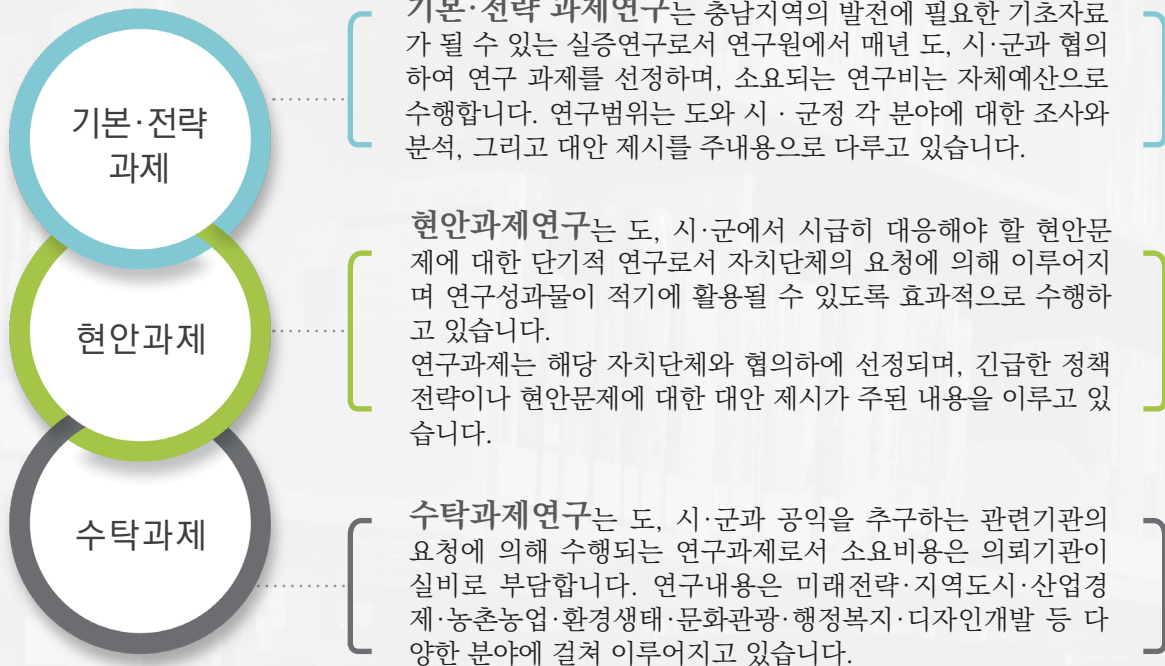
상생협력 갈등관리포럼

- | 지역갈등관리 및 상생발전방안 계획 수립 및 평가
- | 갈등관리 해결방안 모델링 구상 및 해결방안 연구
- | 지역갈등사례시 정책의 조정 · 분석 · 평가
- | 지원 및 기초연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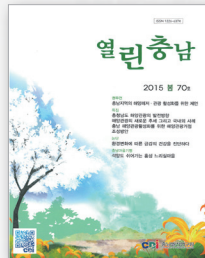
농어업 6차산업화 센터

-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의 계몽 및 확산 · 보급 활동
-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경영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활동
- | 충남 지역순환농식품체계(로컬푸드) 구축 및 지원 활동
- | 농어업 6차산업화의 모델 개발 연구 활동

어떠한 연구활동을 하는가?



/ 연구조성 발간사업



- 출연기관인 도, 시·군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과제의 계약 체결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3억 이상 출연기관 : 계약금액의 20%, 3억 미만 출연기관 : 계약금액의 10% 할인

-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합니다.

- 책임감 있는 A/S가 보장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법률기관으로 존속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컨설팅 등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중앙·지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현안사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시·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무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 시·군에 의한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현안과제, 공공디자인 컨설팅, 연구 자문 및 멘토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시·군에 대한 정확한 DATA BAS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충남의 15개 시·군의 현안을 일관되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20년 동안축적된 DB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 다양한 전문 인력과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시·지역개발, 문화·관광, 산업경제, 자치행정, 환경, 농업농촌, 교통, 디자인,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열정, 책임

미래지향

지혜

도민신뢰

목표

- 지역을 위한 열정과 책임을 지닌 연구자
-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 함께 지혜를 모으는 네트워크 조직
- 도민이 신뢰하는 최고 정책 연구기관

실천과제

- 시·군 정책협력단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 지역문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현장탐방 분기별 실시
- 충남 미래연구서(충남미래 2040) 발간
- 국비 확보를 위한 분야별 D/B 구축
- 충남 경제비전 2030 프로젝트 등 중장기연구 추진
- '충청중국포럼' 등 국내외적 네트워크 활동 확대
- 지역내 단체,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
- 연구성과물 100% 도민에게 개방
- 연구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연구성과물 표절방지 시스템 도입·운영





집필진과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총괄책임	이인배	선임연구위원
집필위원	김정연	수석연구위원
	최병학	선임연구위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이상진	선임연구위원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연구위원
	백운성	연구위원
	고승희	연구위원
	김정희	기획팀장
역대원장회고록	정봉희	홍보팀장
역대원장회고록	김용웅	5·6대 원장
	박진도	7대 원장
편집디자인	신선하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20년사

인쇄일	2015년 6월 10일
발행일	2015년 6월 12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99
	www.cni.re.kr

인쇄제작	필성인쇄사
------	-------

